

2026.03.06.(금) 증권사리포트 "액트로 북미향 전장·로봇 모멘텀 가시화 구간"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에이유브랜즈

성장 가능성 대비 크게 저평가

[출처] 하나증권 박찬솔 애널리스트

중국 오프라인 확장과 수출 비중 확대를 통한 구조적 성장 기대

하나증권은 에이유브랜즈에 대해 중국 오프라인 매장의 가파른 증설과 수출 비중 상승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박찬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4분기 판관비 증가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정체되었으나, 플래그십 매장 확대에 따른 매출 역량 증대가 고정비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6년 중 중국 내 매장을 42개까지 확장하며 수출 비중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Tmall 등 온라인 채널의 성장이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0	189	419	446
영업이익	0	64	162	124
세전이익	0	60	163	123
순이익	0	48	129	101
EPS	0	460	1,034	807
증감율	N/A	N/A	124.8	(22.0)
PER	0.0	0.0	0.0	0.0
PBR	0.0	0.0	0.0	0.0
EV/EBITDA	0.0	0.0	0.0	0.0
ROE	0.0	64.0	63.4	31.5
BPS	0	595	1,632	2,565
DPS	0	0	0	0



S-Oil

다시 한번 확인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의 중요성

[출처] 한국투자증권 이충재 애널리스트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정제 마진 강세와 타이트한 수급 기반의 실적 호조 전망

한국투자증권은 S-Oil에 대해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초강세, 그리고 PX 스프레드 개선을 바탕으로 2026년 영업이익이 러-우 전쟁 당시 수준인 3.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란 전쟁 위기 속에서 중국의 정유 제품 수출 중단 지시와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 감소가 맞물

러 글로벌 정유 수급이 매우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타이트한 에너지 수급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동사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를 15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CJ대한통운

택배 점유율 상승은 흔들림 없음

[출처] 한국투자증권 최고운 애널리스트

매일오네 서비스 안착을 통한 압도적 점유율 확대와 비용 효율화 달성

한국투자증권은 CJ대한통운에 대해 주 7일 배송 서비스인 '매일오네'의 안착으로 택배 시장 내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네이버와 이마트 등 주요 화주들의 서비스 이용 확대로 물동량이 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AI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한 물류 디지털화로 수익성 또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활 밀착형 필수 서비스로서 견조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75,000원을 유지했다.



액트로

북미향 전장·로봇 모멘텀 가시화 구간

[출처] 하나증권 권태우 애널리스트

고부가 검사 장비 및 로봇용 액추에이터 양산을 통한 사업 구조 혁신

하나증권은 액트로에 대해 스마트폰 부품 중심에서 고마진 검사 장비 및 전장·로봇 신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태우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북미 세트업체향 6축 OIS 검사기와 배터리 업체향 테라헤르츠 검사 시스템 공급이 실적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며, 특히 단가가 높은 로봇용 액추에이터의 2분기 초도 양산이 전사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7년 매출액 3,000억 원 달성을 바탕으로 기존 부품주에서 성장주로의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이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92	133	157	203
영업이익	(2)	(6)	5	2
세전이익	3	(11)	6	4
순이익	3	(9)	6	1
EPS	285	(927)	571	148
증감율	39.0	적전	흑전	(74.1)
PER	30.9	(6.5)	14.1	34.2
PBR	1.1	0.9	1.1	0.7
EV/EBITDA	17.5	16.6	3.9	2.7
ROE	3.9	(14.7)	8.4	2.1
BPS	7,930	7,015	7,476	7,556
DPS	100	100	100	100





삼성전기 기판, 살판 났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박준서 애널리스트

차세대 FC-BGA 수요 폭발과 고부가 MLCC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쿼텀 점프 전망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 테슬라(T사)향 A16 칩 탑재 확대에 따른 FC-BGA의 구조적 수요 확장과 MLCC 가격 인상 사이클이 맞물리며 강력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준서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2028년부터 도입될 A16 기판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및 데이터센터 플랫폼에 동시 적용되면서 역대 최대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AI 서버용 고스펙 MLCC의 가격 상승이 실적 향상을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향후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00,000원을 유지했다.

결산기 (12월)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십억원)	8,892	10,294	11,317	12,815	14,304
영업이익 (십억원)	661	735	913	1,366	1,782
영업이익률 (%)	7.4	7.1	8.1	10.7	12.5
순이익 (십억원)	423	679	669	1,106	1,432
EPS (원)	5,450	8,752	8,627	14,172	18,454
ROE (%)	5.5	8.2	7.4	11.2	13.1
P/E (배)	28.1	14.1	29.6	25.6	19.6
P/B (배)	1.5	1.1	2.3	3.0	2.6
배당수익률 (%)	0.8	1.5	0.9	0.9	1.1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삼성전기,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